



세무·회계·경영(TAM)쟁점뉴스 요약

내년부터 탄소저감기술 투자 시 최고 12% 세액공제

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탄소 저감 관련 기술을 통합 투자세액공제 내 신성장기술에 포함하고, 관련 투자액의 최고 12%를 소득·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도록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한다.

통합투자세액공제는 여러 법으로 나뉜 기업 시설투자 관련된 세액공제제도를 하나로 합친 제도로 복잡한 기준을 정리해 이용하기 쉽게 개편됐다.

토지·건물 등 일부 자산을 제외한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는 기업은 해당 연도 투자액에 기본 공제율(1~10%)을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 받는다.

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도 해준다.

특히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의 경우 대기업은 3%, 중견기업 5%, 중소기업 12% 등 일반 시설투자보다 우대 혜택을 받는다.

현재 신성장·원천 기술에는 ▲미래차 ▲바이오 헬스 ▲융복합 소재 ▲로봇 등 12대 분야 223개 기술이 지정돼 있으며, 향후 탄소 저감 관련 기술 등도 새로 포함된다.

신성장기술 중소기업의 경우 12%와 추가적인 세액공제까지 챙길 수 있는 것이다.

기재부는 탄소 저감 기술, 포집 기술, 탄소 배출 감축 등 그린 뉴딜과도 연계되는 내용에 대해 우대 공제를 적용하고, 디지털 뉴딜 관련한 신성장 기술도 추가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구성양식 개선한 K-IFRS 기준서… 연말부터 제공

회계기준원이 이용자 편의를 위해 연말부터 구성양식을 개선한 K-IFRS 기준서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.

기준서 형식의 변경이며, 내용 변화는 없다.

주요 개선내용은 구성항목 구분, 결론도출근거 성격 명확화 등이다. 구성항목 영역에서는 기준서를 ▲본문 ▲적용 사례·실무적용지침 ▲결론도출근거 ▲기타 참고사항 등

4가지 항목으로 명확하게 구분했다.

결론도출근거에서는 'IFRS 결론도출근거'와 'K-IFRS 결론도출근거'를 구분했다.

IFRS 결론도출근거에서는 IFRS 제정주체(IASB 등)가 회계기준 제정절차 등을 자세히 서술했으며, K-IFRS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도록 원문을 번역해 제공한다.

K-IFRS 결론도출근거에서는 회계기준위원회(KASB)가 추가한 문단에 대한 근거 등을 설명했다.

이밖에 기준위원회 의결 표시 수정, 저작권 번역 오류 수정했다.

개선내용은 기준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.

국세청, 내년부터 '애견숍·미용실'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포함

국세청이 내년부터 애견용품점, 미용실 등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했다고 15일 밝혔다.

적용대상은 ▲전자상거래 소매업 ▲두발 미용업 ▲의복 소매업 ▲신발 소매업 ▲통신키기 소매업 ▲컴퓨터 및 주변장치 ▲소프트웨어 소매업 ▲애완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▲독서실 운영업 ▲고시원 운영업 ▲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이다.

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.

발급의무 위반 시 해당 거래대금 20%의 가산세가 부과되며, 소비자와 현금 거래 시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한다.

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'계약서, 영수증, 무통장 입금증' 등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홈택스나 우편 등으로 신고하면 미발급 신고금액의 20%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.

또한,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두 배의 소득공제 혜택(공제율 30%)을 받을 수 있다.